

AIDS 예방

1. AIDS란?

AIDS란 후천성면역결핍증(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이라 하며,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라고 하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병한다. AIDS는 감염된 정액, 질 분비액, 혈액 등에 의해 감염되며 신체의 세포 면역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보통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 감염 및 악성종양 등을 일으킨다. 우리 나라는 1985년에 첫 감염자가 보고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명의 환자가 있다.

2. AIDS 관련통계

1) 우리 나라 HIV 감염자 발생 현황

국립보건원은 지금까지 확인된 우리 나라의 HIV총감염자수가 2001년 3월말 현재 1,350명이라고 밝혔다. 이 발표에 따르면 2001년 1월부터 3월말까지 70명의 감염자가 추가로 확인되었으며(같은 기간동안 '99년 42명, '00년 59명임) 14명의 감염자가 환자로 전환되었고 16명이 사망하였다.

감염자 1,350명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감염경로가 확인된 1,152명 중 1,110명(96%)이 성접촉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나머지는 현재 역학조사중이거나 감염경로 불명자임) 수혈 또는 혈액

제제에 의한 감염자수는 총 38명이었고('95년도 이후 추가감염자 없음) 수직감염자는 2명으로 확인되었다. 감염경로 중 마약으로 인한 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2명(남자) 확인되었으며, 감염자 중 10대감염자로 남자 2명(고교생 1, 대학생 1) 새로이 발견되었다.

최근 감염자 증가율이 높아진 주 요인으로는 과거에 비해 개인 건강관리차원에서 익명검사를 포함한 위험노출자들의 보건소, 의료기관 등을 통한 자진검진사례 증가와 정부의 치료비지원 혜택을 받기 위한 비노출감염자의 자진 확인 사례 증가 등으로 HIV 감염자의 발견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 세계 HIV 감염자 발생현황

유엔에이즈(UNAIDS)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999년 12월 현재 전세계의 에이즈 감염자 및 환자수는 총 3,360만명 수준이며, 이미 1,630만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도에만 전 세계적으로 560만명이 새롭게 감염되었으며 사망자도 260만명에 달하였다. 새롭게 감염된 사람 중 90% 정도가 개발도상국에서 발생되고 있으나 그중 약 90%정도가 자신의 감염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대륙별 감염자 분포는 아프리카지역이 2,352만명, 동남아시아 지역 653만명, 아메리카지역 258만명 등으로 되어있으나 최근

(1999년 11월) 인도정부는 자국의 감염자수를 350만명으로 발표하였으며, 중국은 40만명, 러시아는 27만명으로 발표하는 등 이들 지역의 감염자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동남아시아 매춘여성들의 HIV 감염률은 캄보디아 64%, 태국 27%, 미얀마 26% 등 대부분 지역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AIDS는 HIV의 감염에 의해 발병하며 HIV의 감염원으로서 중요한 것은 혈액, 정액, 질분비액이다. 따라서 HIV는 주로 성행위 및 혈액을 매개로 감염된다. 이성간, 동성간의 성접촉으로 감염될 수 있으며 HIV에 감염된 혈액을 수혈 받거나 약물중독자들이 감염된 주사기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감염되기도 한다. 태반을 통해 태아를 감염시킬 수도 있으며 모유를 통해 신생아, 유아가 감염되기도 한다.

3. AIDS 감염경로

HIV는 혈액이나 체액에서는 수일간 살아있으나 공기가 건조하여 바짝 말라버린 상태에서는 바이러스 활성이 급격히 떨어진다. 악수, 포옹 등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으며 모기 등 곤충을 매개로 감염되지 않는다. 콜레라균 등과는 달리 음식물 속에 생존하지 않으므로 음식물로 감염되지 않는다.

1) 남녀간의 성행위

HIV는 정액이나 질분비액 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콘돔을 쓰지 않고 한 번이라도 감염된 사람과 성행위를 할 경우 감염될 수 있다.

2) 남성간 동성연애

남성간의 성접촉에서는 대부분 항문 성교가 행하여지므로 행위 시 직장이 손상을 입고 출혈하는 경우가 많아 HIV에 쉽게 감염된다.

3) 다른 성병과의 관계

매독, 클라미디아 등 다른 성병에 감염되어 있는 사람은 정상인에 비해 HIV에 감염되기 쉽다

4) HIV에 감염되지 않는 경우

- 직장에서 HIV 감염자와 같이 근무
- 수영장, 대중탕
- 공중화장실, 변기 공용
- 전철 손잡이
- 이발소, 미장원, 면도기구(소독을 해야 함)
- 병원(치과 등)의 의료기구(소독을 해야 함)
- 침술원의 바늘(소독을 해야 함)
- 약수
- 재채기, 기침, 땀, 눈물
- 컵, 식기 함께 사용하기

4. AIDS의 예방

AIDS는 현재까지 특별한 치료제가 없으며 단 한번의 성행위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으므로 예방만이 최선이다. 남성동성연애자, 혈액제제를 투여받는 혈우병 환자, 정맥주사 약물남용자 등에서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행위 시 처음부터 끝까지 콘돔을 사용하고, 정액 또는 질분비액이 직접 접촉되지



AIDS를 예방하는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고 효과적인 치료제가 아직 없는 실정이므로 HIV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1) 안전한 성관계

서로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배우자와의 성생활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다.

2) 콘돔 사용

예방방법으로 올바른 콘돔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패할 수도 있으므로 콘돔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 100% 안전하지는 않다.

3) 기타

주사기나 침 등을 사용할 때나 문신을 새길 때 또는 컷발을 뚫을 때 등은 반드시 멸균된 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5. AIDS의 치료

현재 AIDS의 원인인 HIV를 죽이는 약은 없으며 HIV의 증식을 막고, AIDS로 발병되는 것을 늦추기 위해 지도부딘(zidovudine, AZT), 라미부딘(lamivudine, 3TC), 디다노신(didanosine, ddi) 등의 항바이러스

제제를 병합하여 투여한다. 항바이러스제의 병합요법은 HIV를 효과적으로 공격하고 약물내성의 위험을 줄임으로써 질병진전 속도를 늦추어 평균 생존기간을 효과적으로 연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치료는 꾸준히 받아야 하고 약에 의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전문치료기관에서 치료받아야 한다.

기회감염, 종양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항바이러스제, 항진균제, 항암제 등을 사용한다. 주폐포자충 폐렴(뉴모시스카리니 폐렴)에는 트리메소프림-설파메톡사졸(Trimethoprim/Sulfamethoxazole), 펜타미딘(pentamidine) 등을, 사이토메가로 바이러스(CMV)의 감염에는 간시크로빌(ganciclovir) 등을, 진균감염에는 암포테리신 B(amphotericin B), 플루코나졸(fluconazole) 등을 투여하고 있다.

AIDS의 원인이 되는 HIV의 감염자는 정기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성행위나 혈액 접촉에 의해 HIV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으므로 성행위 시 콘돔 등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정액(질분비액)과의 직접접촉을 막아야 한다. 상처 등으로 출혈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감염자 본인이 직접 처리하고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혈액에 접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AIDS를 예방하는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고 효과적인 치료제가 아직 없는 실정이므로 HIV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7]

(자료제공 :

<http://healthguide.kihasa.re.kr>)